



[협회소식]

◆ ISO/TC51 국제표준화회의 소식



지난 2008년 11월 17일에서 21일 4박 5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주립대학교에서 ISO/TC51(파렛트 성능요건 및 시험선택) 국제표준화회의가 열렸다.

이날 한국의 대표단으로는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팀의 한상원 사무관, 한국파렛트 컨테이너기술연구소 엄재균 소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이석 연구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 WG2 (시험방법)의 Convenor로 활동한 미국의 Dr. Mark White가 사임하고 한국의 엄재균 소장이 WG2의 새로운 Convenor로 활동하기로 결정 되었다.

이날 회의를 통하는 우리 측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안한 “플라스틱 파렛트 시험시간의 단축을 위한 예측방법”에 관한 규격을 Technical Specification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여 시험시간 단축에 따른 시험비용이 절감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이 단독으로 NP 제안하여 채택된 “상자형 파렛트 주요 요건과 시험방법” 규격안이 CD 투표 단계로 상정하기로 합의하여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자형 파렛트가 표준규격에 반영되어 국제간의 무역에 본 표준규격이 사용됨으로써 물류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한국은 엄재균 소장이 핵심 워킹그룹인 WG2와 WG8의 Convenor를 동시에 맡게 되어 향후 본 기술위원회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관련 표준규격의 개발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ISO/TC51은 국제 물류활동에 필요한 파렛트의 호환성을 위하여 파렛트의 크기, 시험방법, 성능기준과 시험선택, 최대적재하중 결정 등 성능요구조건 및 용어와 관련된 표준을 다루고 있는 ISO/TC 51(Pallets for unit load method of material handling) 기술 위원회로서 21개 'P' 회원국과 26개국 'O'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있다.